

2026년 7월 17일(금) 구역예배 자료 <그곳에 머물러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3장 1~10절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262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3장 1~10절(신191)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488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7월 12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 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돈이나 얻을 수 있을까 구걸하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오랜 병을 고침받은 기적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의 요약〉

본문 1절은,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구 시는, 우리 식으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들과 신자들이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을, 공공연히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배척했던, 유대교에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신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기독교 신앙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AD 389년에 태어나, 461년에 세상을 떠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 신도도 아니었지만,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패트릭은 389년, 로마군 주둔지였던 브리타니아에서, 공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세기 말, 로마 군대가, 브리타니아를 버리고 떠나면서, 이 지역은, 아일랜드 켈트족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패트릭은, 16세에, 브리타니아 서안을 약탈한, 노예 상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농부에게 팔려 가, 돼지를 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6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안으로 몰래 도망쳤는데, 프랑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배에 올라탔고, 프랑스에 도착한 그는, 프랑스 리비에라 인근 섬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패트릭은 마침내, 브리타니아로 돌아와,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꿈을 꾸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꿈에서, 아일랜드 사람이, 그가 전에 노예로 잡혔던 땅으로, 복음을 들고 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패트릭은 순종하기로 하고, 갈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로 돌아가, 켈트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켈트족의 신앙이었던, 드루이드 사제들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죽음의 위협도 헤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일랜드에서 30년간 사역을 한 뒤, 그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패트릭은,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을 섬기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패트릭은, 용서와 희생의 롤모델로, 아일랜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현대인의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 상태로 있을 때 보내셨을까요?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새번역성경》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누기〉

- 1. 내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다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 2.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유대교에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산의 성도들이,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웅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용서하고 선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